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수의사로서 제 삶과 함께한 수의사회를 위한 마지막 임무를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78년 복간된 대한수의사회지의 발행을 책임지는 학술홍보위원장으로 편집을 맡은 후 2005년 대한수의사회 제21대 회장까지 대한수의사회의 역사 60년 중 30년을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성장해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꿈 껴왔던 수의사로서의 행복함을 느끼는 터전으로 대한수의사회와 항상 같이 호흡해 왔습니다.

특히, 제21대 회장으로서의 지난 3년간은 저에게는 참 보람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의사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 공익수의사의 출범, 공무원임용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수의사의 위상제고,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수급문제의 일부 조정 가능성확보, 인체용전문약품의 동물병원에서의 사용문제 해결 등 작은 노력의 성과들이 나타났고, 수의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연구용역과



이를 기반으로 정책·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 수의사들은 인류와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물의 의사입니다. 이것이 수의사의 근본사명이며, 우리들의 길잡이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① 수의학교육의 인증 및 수급문제, ② 면허체계, ③ 수의료시스템 구축, ④ 수의사의 의무와 권한의 명확화, ⑤ 국민들에게 수의업무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저는 지난 3년 동안 시급한 현안과제의 해결과 함께 5대 과제에 대한 기틀을 닦아 왔습니다.

앞으로 제22대 임기동안에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와 회원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수의사회의 업무처리방향을 개선하고, 21세기 비전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3년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참여하고 힘을 합하여 큰 발전을 이룩해 냅시다.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대한수의사회장 정 영 채 올림